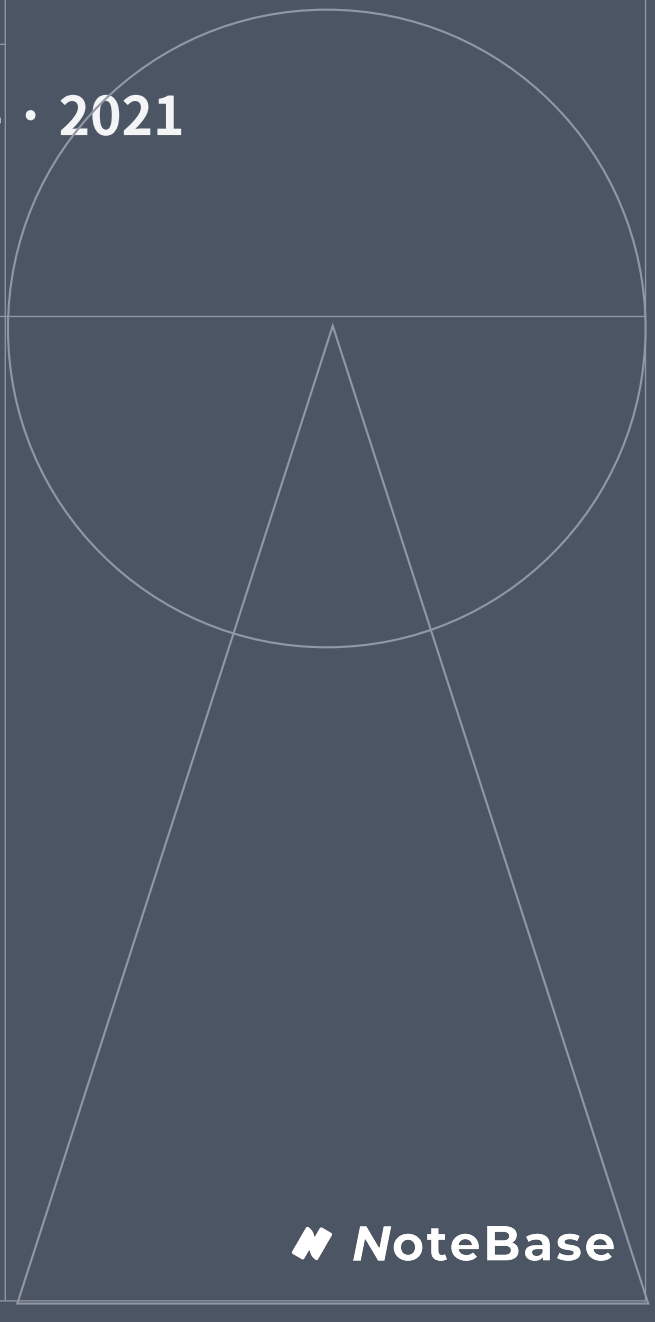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1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1

문 101.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① 상품 가격이 변화할 때 상품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②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언제나 일정하다.

③ 수요곡선이 $Q = 5/P$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은 수요곡선 상 모든 점에서 항상 1이다.

④ 정상재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⑤ 사치재에 비하여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내며,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까지 함께 판단하는 문항이다.

사용할 공식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다음과 같다.

$E_d = \left|\frac{\%\Delta Q}{\%\Delta P}\right| = \left|\frac{dQ}{dP}\frac{P}{Q}\right|$

총수입은 $TR = P \times Q$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E_d > 1$이므로 가격과 총수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단위탄력적이면 총수입이 일정하며, 비탄력적이면 가격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가'라는 표현은 절대적인 수요량 변화로 읽히므로 가격탄력성의 정의로 정확하지 않다. 올바르게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척도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O
수직인 수요곡선에서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 Q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고 가격탄력성도 모든 점에서 0으로 일정하다.

③ O
$Q = 5/P$이면 $dQ/dP = -5/P^2$이다. 따라서
$E_d = \left|\left(-\frac{5}{P^2}\right)\frac{P}{5/P}\right| = 1$
이므로 수요곡선의 모든 점에서 단위탄력적이다.

④ O
$E_d > 1$인 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더 크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TR = P \times Q$는 증가한다. 정상재라는 조건은 이 가격 변화와 총수입의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

⑤ O
생활필수품은 가격이 변해도 소비량을 크게 조절하기 어려워 대체로 가격탄력성이 작다. 사치재는 소비를 미루거나 줄이기 쉬워 대체로 가격탄력성이 더 크다.

오답 포인트

①의 '얼마나 변하는가'를 단순한 수요량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탄력성의 정의인 '변화율의 비율'로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한 수직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매우 크더라도 탄력성은 0이며, 기울기와 탄력성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탄력성의 정의에서 분자와 분모가 모두 변화율인지 확인한다. 함수가 주어지면 $E_d = |(dQ/dP)(P/Q)|$를 적용하고, 총수입 문제에서는 탄력적 수요일 때 가격과 총수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기준을 사용한다.

암기 포인트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이다. 수직 수요곡선은 0, $Q = k/P$는 1이며, 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과 총수입이 반대로 움직인다.

NoteBase

문 102. 기펜재(Giffen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이 하락하면 재화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②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재화이다.

③ 가격 상승 시 소득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④ 기펜재는 모두 열등재이지만 열등재가 모두 기펜재는 아니다.

⑤ 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펜재의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 및 상대적 크기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펜재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도 늘어나는 특수한 열등재이다. 가격 상승 시 대체효과는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열등재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기펜재에서는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소득효과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보다 커서 전체 소비량이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펜재는 수요법칙의 예외이므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감소한다.
② O — 기펜재에서는 소득효과의 크기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가격 상승 시 소득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감소시킨다'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기펜재는 열등재이므로 이 소득효과는 해당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④ O — 기펜재가 되려면 열등재이면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기펜재는 모두 열등재이지만, 소득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은 열등재는 기펜재가 아니다.
⑤ O —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화로 대체하려는 대체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재화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가격 상승의 전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혼동하게 만든다. 가격 상승 시 기펜재의 전체 소비량은 증가하며, 소득효과도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대체효과만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의 방향을 정하고, 다음으로 실질소득 변화가 열등재 소비에 미치는 방향을 판단한다. 두 효과가 반대일 때 소득효과가 더 크면 기펜재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펜재는 '열등재이면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재화'이다.

NoteBase

문 103.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순수공공재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②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방해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③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④ 완전경쟁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분배의 공평성도 보장해주는 시장이다.

⑤ 긍정적 외부경제는 시장실패를 유발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시장실패의 의미와 공공재, 정부개입, 완전경쟁, 외부경제의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기구만으로 자원이 파레토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지닌다.
외부경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상 없이 편익을 주는 효과이며,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경합성은 있다"이다. 순수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으므로 비경합성이 있으며,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도 있다.
② O — 상호 이익이 가능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추가적인 거래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높일 여지가 남으므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는 시장실패에 해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개입을 검토할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개입의 비용이나 정부실패로 인해 개입 후의 후생이 더 낮아질 수도 있으므로 충분조건은 아니다.
④ X — 틀린 표현은 "분배의 공평성도 보장"한다는 부분이다. 완전경쟁시장은 일정한 조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지만,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⑤ X — 틀린 표현은 "시장실패를 유발하지 않는다"이다. 긍정적 외부경제가 있으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 시장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어지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시장실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개입이 언제나 정당화된다고 착각하게 한다. 시장의 비효율성과 정부개입의 성과는 별도로 비교해야 한다. ⑤는 외부효과가 부정적일 때만 시장실패가 생긴다고 오해하게 하지만, 긍정적 외부경제도 과소공급을 일으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가 시장의 자율적 거래가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비경합성, 외부경제는 과소공급, 완전경쟁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구분, 정부개입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비교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순수공공재는 비배제·비경합, 긍정적 외부경제는 과소공급, 완전경쟁은 효율성만 보장하고 공평성은 보장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04. 지니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표적인 소득분배 측정방법 중 하나이다.
ㄴ. 45도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면적을 45도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에 만들어진 초승달 모양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ㄷ.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ㄹ. 계수의 값이 클수록 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지니계수의 정의, 계산 구조, 값의 범위와 소득분배 상태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완전평등선인 45도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을 B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frac{A}{A+B}$이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만 옳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소득분배 측정지표이다.

② X
ㄴ의 '45도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면적을 초승달 모양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45도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45도 대각선 아래 전체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③ X
ㄴ과 ㄷ이 모두 틀렸다. ㄴ은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었으며, 올바른 비율은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 ÷ 대각선 아래 전체 삼각형 면적'이다. ㄷ의 '-1과 1 사이'도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④ X
ㄷ과 ㄹ이 틀렸다. ㄷ의 '-1과 1 사이'는 '0과 1 사이'로 고쳐야 한다. ㄹ의 '값이 클수록 평등한 분배'도 반대이며, 올바르게는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⑤ X
ㄴ, ㄷ, ㄹ이 모두 틀렸다. ㄴ은 전체 삼각형 면적이 분모이고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 분자이다. ㄷ은 '-1과 1 사이'가 아니라 '0과 1 사이'이다. ㄹ은 '값이 클수록 평등'이 아니라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다.

오답 포인트

ㄴ은 지니계수의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 제시했고, ㄷ은 상관계수의 범위인 -1부터 1까지와 혼동하게 만들었다. 또한 ㄹ은 계수의 크기와 평등도의 관계를 정반대로 제시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니계수는 '불평등 면적 ÷ 대각선 아래 전체 면적'으로 판단한다.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고,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방향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지니계수는 0이면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다.

NoteBase

문 105. 독점기업의 시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장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①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② 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높다.

④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독점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다.

⑤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항상 수요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의 관계, 그리고 독점기업에는 독립적인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곧 시장수요곡선이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서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하므로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이를 식으로 쓰면 $MR = P(Q) + QP'(Q)$이고, $P'(Q) < 0$이므로 양(+)의 판매량에서 $MR < P$이다.
독점기업은 수요조건과 비용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정하므로 가격과 공급량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독립적인 공급곡선이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독점기업은 시장 전체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시장수요곡선과 같다. 문제의 전제대로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독점기업의 수요곡선도 우하향한다.
② O —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관계로 결정되며, 한계수입은 수요곡선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가격만으로 공급량이 정해지는 독립적인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높다'이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서는 추가 판매를 위해 기존 판매분에도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해야 하므로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낮다. 올바르게는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양(+)의 판매량에서 가격보다 낮다'이다.
④ O — 독점기업은 이윤 $\pi = TR - TC$를 극대화하므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 즉 $MR = MC$인 생산량을 선택한다. 통상적인 이윤극대화 조건에서는 그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⑤ O —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서 한 단위를 더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므로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따라서 양(+)의 판매량 구간에서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 아래에 위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독점기업이 가격설정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추가 한 단위에서 얻는 수입도 가격보다 크다'고 잘못 연결하게 만든다. 가격설정력이 있어도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므로 한계수입은 오히려 가격보다 작다. 또한 ②의 '공급곡선이 없다'는 말은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조건과 무관한 독립적 공급곡선이 없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 문항에서는 먼저 기업의 수요곡선이 시장수요곡선과 같다는 점을 확인한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면 $MR < P$를 적용하고,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MR = MC$로 찾은 뒤 수요곡선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 과정 때문에 독점기업에는 독립적인 공급곡선이 없다.

암기 포인트

독점은 수요곡선이 곧 평균수입곡선이고, 한계수입곡선은 그 아래에 있다. 생산량은 $MR = MC$,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결정하며 독립적인 공급곡선은 없다.

NoteBase

문 106. 완전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TC(Q) = 4Q^2 + 2Q + 10$이다. 재화의 시장가격이 42일 경우 극대화된 단기 이윤은? (단, Q는 생산량, $Q > 0$이다.)

① 10
② 42
③ 52
④ 84
⑤ 9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P = MC$로 최적 생산량을 구한 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 극대화된 단기 이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시장가격: $P = 42$
총비용함수: $TC(Q) = 4Q^2 + 2Q + 10$
구해야 할 값: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의 단기 이윤 $\pi = TR - TC$

사용할 공식

$MC(Q) = \frac{dTC(Q)}{dQ}$
$P = MC(Q)$
$\pi(Q) = TR(Q) - TC(Q) = P \cdot Q - TC(Q)$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한계수입이 가격과 같다. 따라서 내부해에서는 $P = MR = MC$가 되는 생산량이 이윤을 극대화한다.

계산 과정

1. 한계비용을 구하면 $MC(Q) = 8Q + 2$이다.
2. $P = MC$를 적용하면 $42 = 8Q + 2$이므로 최적 생산량은 $Q^* = 5$이다.
3. $Q = 5$에서 평균가변비용은 $AVC = 4Q + 2 = 22$이고 가격 42가 이를 초과하므로 단기에 생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총수입은 $TR = 42 \times 5 = 210$이고, 총비용은 $TC(5) = 4 \times 5^2 + 2 \times 5 + 10 = 120$이다.
5. 극대화된 단기 이윤은 $\pi^* = 210 - 120 = 9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10은 총비용함수의 상수항인 고정비용일 뿐 극대화된 이윤이 아니다. 올바른 이윤은 90이다.

② X
42는 재화의 시장가격이지 총이윤이 아니다. 올바른 이윤은 $42 \times 5 - TC(5) = 90$이다.

③ X
52는 시장가격 42와 고정비용 10을 단순히 더한 값으로, 이윤 계산식에 따른 값이 아니다. 올바른 이윤은 총수입 210에서 총비용 120을 뺀 90이다.

④ X
84는 시장가격 42를 두 배 한 값일 뿐이다. 최적 생산량은 2가 아니라 5이므로 총수입부터 $42 \times 5 = 210$으로 계산해야 하며, 올바른 이윤은 90이다.

⑤ O
$P = MC$에서 $Q^* = 5$이고, 이때 $\pi^* = 210 - 120 = 90$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가격 42, 고정비용 10, 이윤 90을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 특히 시장가격을 그대로 이윤으로 보거나 가격과 고정비용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먼저 $P = MC$로 생산량을 결정한 뒤 $TR - TC$를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이윤 문제는 한계비용 계산 → $P = MC$로 최적 생산량 결정 → 가격과 평균가변비용의 비교로 생산 여부 확인 → $\pi = PQ - TC$ 계산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의 최적 생산량은 $P = MC$, 이윤은 $PQ - TC$이다.

NoteBase

문 107. 상품 A의 수요함수가 $Q = 4P^{-2}Y^{0.4}$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Y는 소득이다.)

①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② 소득이 2% 감소하면, 수요량은 0.4% 감소한다.

③ 소득탄력성의 부호는 음(-)이다.

④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증가한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은 2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함수에서 가격과 소득의 지수를 각각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으로 읽고, 가격 변화에 따른 총수입의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수요함수는 $Q = 4P^{-2}Y^{0.4}$이다.
구해야 할 값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가격 변화에 따른 총수입의 방향이다.
탄력성의 부호와 절댓값을 구분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점가격탄력성은 $\varepsilon_P = \frac{\partial Q}{\partial P}\frac{P}{Q}$, 소득탄력성은 $\varepsilon_Y = \frac{\partial Q}{\partial Y}\frac{Y}{Q}$이다.
$Q = AP^aY^b$와 같은 거듭제곱 함수에서는 각 변수의 지수가 그 변수에 대한 탄력성이므로 $\varepsilon_P = -2$, $\varepsilon_Y = 0.4$이다.
총수입은 $TR = PQ$로 판단한다.

계산 과정

1. 가격탄력성은 $\varepsilon_P = -2$이므로 절댓값은 $|\varepsilon_P| = 2$이다.
2. 소득탄력성은 $\varepsilon_Y = 0.4$이므로 소득이 2% 감소하면 수요량은 근사적으로 $0.4 \times 2\% = 0.8\%$ 감소한다.
3. 총수입은 $TR = PQ = 4P^{-1}Y^{0.4}$이므로 소득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TR = 4P^{-1}Y^{0.4}$이므로 가격 상승 시 총수입은 감소한다.
② X. 수요량이 0.4% 감소한다는 수치가 틀리다. 소득탄력성이 0.4이므로 소득이 2% 감소하면 수요량은 근사적으로 0.8% 감소한다.
③ X. 소득탄력성의 부호가 음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소득의 지수가 0.4이므로 소득탄력성은 양(+)이며, 상품 A는 정상재이다.
④ X. 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증가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이 수요함수의 가격탄력성은 모든 가격에서 -2, 절댓값으로 2인 상수이다.
⑤ O. 가격의 지수가 -2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2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소득탄력성 0.4를 수요량의 감소율로 그대로 옮기는 함정이다. 변화율은 탄력성에 소득변화율 2%를 곱해야 한다. ④는 일반적인 직선 수요곡선에서 탄력성이 점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거듭제곱 수요함수에도 잘못 적용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Q = AP^aY^b$ 형태에서는 먼저 지수 a와 b를 탄력성으로 읽는다. 그다음 가격탄력성은 부호와 절댓값을 구분하고, 총수입은 $TR = PQ$에 수요함수를 대입해 가격의 지수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거듭제곱 수요함수는 지수가 곧 탄력성이다. P^{-2}는 가격탄력성 -2, $Y^{0.4}$는 소득탄력성 0.4이다.

NoteBase

문 108.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개별 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은 U-자 형태로 동일하며, 생산요소시장도 완전경쟁이다.)

① 한계수입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이다.

② 이윤은 단기에도 항상 영(0)이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영(0)이다.

④ 단기에는 평균 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조업중단점이 된다.

⑤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평균수입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이 가격수용자라는 사실에서 한계수입곡선, 이윤, 수요의 가격탄력성, 조업중단점, 이윤극대화 조건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경쟁기업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가격에서 수평이고, $P = AR = MR$이 성립한다.
단기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원칙적으로 $MR = MC$인 지점에서 결정된다. 다만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의 최저값보다 낮으면 생산할수록 손실이 커지므로 조업을 중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한계수입곡선은 우하향'이다.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에 원하는 만큼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계수입곡선은 시장가격 수준에서 수평이며, $MR = P$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단기에도 항상 영(0)'이다. 단기에는 시장가격과 평균비용의 관계에 따라 초과이윤, 영(0)의 경제적 이윤, 손실이 모두 가능하다. 장기에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로 경제적 이윤이 영(0)이 되는 균형에 이른다.

③ X
틀린 표현은 '가격탄력성은 영(0)'이다. 개별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무한대이다. 가격탄력성이 영(0)인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④ O
단기 조업중단점은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의 최저값과 같아지는 지점이다. 가격이 그 최저값보다 낮으면 수입으로 가변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므로 생산을 중단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평균수입은 한계비용보다 크다'이다.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는 $P = AR = MR = MC$가 성립하므로 평균수입은 한계비용과 같다.

오답 포인트

②는 장기의 영(0) 이윤을 단기에도 적용하게 만들고, ③은 수평인 수요곡선과 수직인 수요곡선의 탄력성을 뒤바꾸게 만든다. 또한 ④의 조업중단점은 평균비용의 최저점이 아니라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의 개별 기업에서는 먼저 $P = AR = MR$을 세운다. 이어 생산량은 $MR = MC$, 단기 조업 여부는 가격과 평균가변비용, 장기 진입·퇴출 여부는 경제적 이윤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은 수평 수요, $P = AR = MR$, 단기 조업중단점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이다.

NoteBase

문 109.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가 $U = 4X^{1/2}Y^{1/2}$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모든 소득을 X재와 Y재의 소비에 지출한다. P_X와 P_Y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 MU_X와 MU_Y는 각각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이다.)

① X재와 Y재는 모두 정상재이다.

② $P_X = 2P_Y$일 때, 최적 소비조합점에서 $MU_X = 0.5MU_Y$를 충족한다.

③ $P_X = 2P_Y$일 때, 최적 소비조합점은 $Y = 2X$의 관계식을 충족한다.

④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⑤ Y재 가격이 상승하여도 X재 소비는 불변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의 한계효용, 효용극대화 조건, 수요함수와 한계대체율의 성질을 함께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효용함수는 $U = 4X^{1/2}Y^{1/2}$이고 소비자는 소득 I를 모두 지출한다. 두 재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각각 2분의 1이므로 수요함수는 $X^* = \frac{I}{2P_X}$, $Y^* = \frac{I}{2P_Y}$이다.

사용할 공식

$MU_X = 2X^{-1/2}Y^{1/2}$, $MU_Y = 2X^{1/2}Y^{-1/2}$이다.
따라서 한계대체율은 $MRS_{XY} = \frac{MU_X}{MU_Y} = \frac{Y}{X}$이다. 내부해의 효용극대화 조건은 $\frac{MU_X}{P_X} = \frac{MU_Y}{P_Y}$, 즉 $\frac{MU_X}{MU_Y} = \frac{P_X}{P_Y}$이다. 이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조건이다.

계산 과정

가격 조건이 $P_X = 2P_Y$이면 최적점에서 $\frac{MU_X}{MU_Y} = \frac{P_X}{P_Y} = 2$이므로 $MU_X = 2MU_Y$이다.
또한 $\frac{MU_X}{MU_Y} = \frac{Y}{X} = 2$이므로 최적 소비조합은 $Y = 2X$를 충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X^* = \frac{I}{2P_X}$, $Y^* = \frac{I}{2P_Y}$이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두 재의 수요가 모두 증가한다. 따라서 X재와 Y재는 모두 정상재이다.
② X — 최적점에서는 $\frac{MU_X}{MU_Y} = \frac{P_X}{P_Y}$이다. $P_X = 2P_Y$이면 $MU_X = 2MU_Y$이므로 '$MU_X = 0.5MU_Y$'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MU_X = 2MU_Y$'이다.
③ O — $P_X = 2P_Y$이면 $\frac{Y}{X} = \frac{P_X}{P_Y} = 2$이므로 $Y = 2X$이다.
④ O — 같은 무차별곡선에서는 $Y = \frac{U^2}{16X}$이므로 $MRS_{XY} = \frac{Y}{X} = \frac{U^2}{16X^2}$이다. X재 소비가 증가할수록 한계대체율이 감소하므로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⑤ O — X재의 수요는 $X^* = \frac{I}{2P_X}$로서 P_Y를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과 P_X가 일정할 때 P_Y가 상승하여도 X재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②는 효용극대화 조건의 가격비를 거꾸로 대입하도록 유도한다. $\frac{MU_X}{MU_Y} = \frac{P_X}{P_Y}$이므로 X재 가격이 Y재 가격의 2배이면 X재의 한계효용도 Y재의 한계효용의 2배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두 한계효용을 구해 $\frac{MU_X}{MU_Y} = \frac{P_X}{P_Y}$를 적용한다. 정상재 여부와 교차가격 효과는 콥-더글러스 수요함수 $X^* = \frac{I}{2P_X}$, $Y^* = \frac{I}{2P_Y}$에서 직접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효용지수가 각각 2분의 1인 콥-더글러스 효용에서는 각 재에 소득의 절반을 지출하며, 최적점에서 '한계효용의 비율 = 가격의 비율'이 성립한다.

NoteBase

문 110.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상품 A의 시장 수요곡선은 $Q = 20 - P$이고, 사적 한계비용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각각 $PMC = 6 + Q$, $SMC = 10 + Q$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해야하는 생산 단위당 세금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고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① 1.5

② 2

③ 3

④ 4

⑤ 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 한계외부비용만큼 피구세를 부과하여 사적 한계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시키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역수요곡선은 $P = 20 - Q$이므로 한계편익은 $MB = 20 - Q$이다.
사적 한계비용은 $PMC = 6 + Q$,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 = 10 + Q$이다.
구해야 할 값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실현하는 생산 단위당 세금이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MB = SMC$에서 정해진다.
$20 - Q = 10 + Q$
생산 단위당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이다.
$t = SMC - PMC$
세금이 부과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한계비용이 $PMC + t$가 되므로, 이를 SMC와 일치시키기 위해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한다.

$20 - Q = 10 + Q$

$2Q = 10, \quad Q^* = 5$

2. 한계외부비용을 구한다.

$SMC - PMC = (10 + Q) - (6 + Q) = 4$

3. 따라서 생산 단위당 세금은 $t = 4$이다. 실제로 $PMC + 4 = 10 + Q = SMC$가 되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달성된다.

선지 판단

① X — 1.5는 한계외부비용 $SMC - PMC$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1.5는 4로 고쳐야 한다.

② X — 2는 $(10 + Q) - (6 + Q) = 4$보다 작아 외부비용을 전부 내부화하지 못한다. 틀린 값 2는 4로 고쳐야 한다.

③ X — 3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 4가 아니다. 틀린 값 3은 4로 고쳐야 한다.

④ O — 생산 단위당 세금 4를 부과하면 $PMC + 4 = SMC$가 되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 $Q^* = 5$가 달성된다.

⑤ X — 5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 $Q^* = 5$를 세금과 혼동한 값이다. 틀린 값 5는 생산량이며, 세금은 4이다.

오답 포인트

사회적 최적 생산량 5와 생산 단위당 세금 4를 혼동하기 쉽다. 세금은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수직 차이인 $SMC - PMC$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오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에서는 먼저 $MB = SMC$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하고, 그 생산량에서 $t = SMC - PMC$를 계산한다. 두 비용곡선의 차이가 생산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면 최적세도 그 일정한 차이와 같다.

암기 포인트

부정적 생산 외부효과의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점에서의 한계외부비용, 즉 $SMC - PMC$이다.

NoteBase

문 111. 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f(k) = 4k^{1/2}$이고, 저축률은 5%, 감가상각률은 2%, 그리고 인구증가율은 2%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자본량은? (단, y는 1인당 산출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① 21

② 22

③ 23

④ 24

⑤ 25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솔로우 성장모형의 균제상태 조건인 $sf(k) = (n + \delta)k$를 이용해 1인당 자본량 k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생산함수 $f(k) = 4k^{1/2}$, 저축률 $s = 0.05$, 감가상각률 $\delta = 0.02$, 인구증가율 $n = 0.02$이다.
구해야 할 값: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 k^*이다.
주의할 조건: 기술진보율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자본의 손익분기투자는 $(n + \delta)k$이다.

사용할 공식

$sf(k) = (n + \delta)k$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에 대한 실제 투자와 인구증가 및 감가상각으로 줄어드는 자본을 보충하는 손익분기투자가 같아야 하므로 이 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주어진 값을 균제상태 조건에 대입하면
$0.05 \times 4k^{1/2} = (0.02 + 0.02)k$
$0.2k^{1/2} = 0.04k$
양의 균제상태에서 양변을 $0.04k^{1/2}$로 나누면
$k^{1/2} = 5$
따라서
$k^* = 25$
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는 25이므로 21은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아니다. 틀린 값 21을 올바르게 고치면 25이다.
② X — 계산 결과는 25이므로 22는 균제상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틀린 값 22를 올바르게 고치면 25이다.
③ X — 계산 결과는 25이므로 23은 균제상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틀린 값 23을 올바르게 고치면 25이다.
④ X — 계산 결과는 25이므로 24는 균제상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틀린 값 24를 올바르게 고치면 25이다.
⑤ O — $0.05 \times 4\sqrt{25} = 1$이고 $(0.02 + 0.02) \times 25 = 1$이므로 실제 투자와 손익분기투자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저축률 5%를 5로 대입하거나 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 중 하나만 반영하면 균제상태 식이 달라진다. 또한 $k^{1/2} = 5$에서 제곱하지 않고 5를 답으로 고르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균제상태 문제에서는 먼저 실제 투자 $sf(k)$와 손익분기투자 $(n + \delta)k$를 같게 놓고, 비율을 소수로 변환한 뒤 k를 푼다.

암기 포인트

균제상태의 핵심은 실제 투자와 손익분기투자의 일치, 즉 $sf(k) = (n + \delta)k$이다.

NoteBase

문 112. 균형국민소득은 $Y = C(Y - T) + G$이다. 정부가 민간분야에 대해 5,000억 원의 조세삭감과 5,000억 원의 지출증가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조세삭감과 정부지출로 인한 균형국민소득의 변화(절댓값)를 옳게 설명한 것은? (단, Y: 균형국민소득, $C(Y - T)$: 소비함수, T: 조세, G: 정부지출, $0 <$ 한계소비성향 (MPC) < 1이다.)

①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크다.

② 조세삭감 효과와 정부지출 효과는 동일하다.

③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작다.

④ 조세승수는 $-1/(1 - \text{MPC})$이다.

⑤ 정부지출승수는 $\text{MPC}/(1 - \text{MPC})$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동일한 규모의 조세삭감과 정부지출 증가가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조세승수와 정부지출승수로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한계소비성향을 $c = \text{MPC}$라 하면 $0 < c < 1$이다.
조세삭감과 정부지출 증가의 규모는 각각 5,000억 원으로 동일하다.
조세삭감은 가처분소득을 늘리지만 그중 c의 비율만 소비로 이어지는 반면, 정부지출 증가는 전액이 총수요에 직접 들어간다.

사용할 공식

정부지출승수는 $\frac{1}{1-c}$, 조세승수는 $-\frac{c}{1-c}$이다.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직접 변화시키므로 정부지출승수의 분자는 1이다. 조세 변화는 가처분소득을 거쳐 소비를 변화시키므로 조세승수의 분자에는 c가 붙고, 조세 증가가 소득을 줄이므로 부호는 음(-)이다.

계산 과정

조세삭감은 $\Delta T = -5{,}000$억 원이므로 국민소득 변화는
Δ Y_T=-(c)/(1-c)×(-5,000)=(c)/(1-c)×5,000억 원
이다.
정부지출 증가는 $\Delta G = 5{,}000$억 원이므로 국민소득 변화는
Δ Y_G=(1)/(1-c)×5,000억 원
이다.
$0 < c < 1$이므로 $\frac{c}{1-c} < \frac{1}{1-c}$이다. 따라서 조세삭감 효과의 절댓값이 정부지출 효과보다 작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조세삭감 효과가 더 크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동일한 금액이라면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작다.
② X — 두 효과가 동일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0 < \text{MPC} < 1$이므로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작다.
③ O — 조세삭감승수의 절댓값은 $\frac{\text{MPC}}{1-\text{MPC}}$, 정부지출승수는 $\frac{1}{1-\text{MPC}}$이므로 전자가 더 작다.
④ X — 조세승수의 분자에 1을 쓴 것이 틀렸다. 올바른 조세승수는 $-\frac{\text{MPC}}{1-\text{MPC}}$이다.
⑤ X — 정부지출승수의 분자에 MPC를 쓴 것이 틀렸다. 올바른 정부지출승수는 $\frac{1}{1-\text{MPC}}$이다.

오답 포인트

④와 ⑤는 두 승수의 분자를 서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조세는 가처분소득을 거쳐 소비에 영향을 주므로 MPC가 붙지만, 정부지출은 총수요에 직접 포함되므로 분자가 1이다. 또한 조세삭감에서는 $\Delta T < 0$이므로 음의 조세승수와 곱한 국민소득 변화는 양(+)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일 금액의 조세 변화와 정부지출 변화를 비교할 때는 먼저 $\left|\frac{-\text{MPC}}{1-\text{MPC}}\right|$와 $\frac{1}{1-\text{MPC}}$를 비교한다. $0 < \text{MPC} < 1$이면 조세승수의 절댓값이 항상 더 작다.

암기 포인트

정부지출승수는 분자 1, 조세승수는 분자 $-\text{MPC}$이다. 동일 금액이면 정부지출 효과가 더 크다.

NoteBase

문 113. A국가의 총수요와 총공급곡선은 각각 $Y_d = -P + 5$, $Y_s = (P - P^e) + 6$이다. 여기서 P^e가 5일 때 (ㄱ) 균형국민소득과 (ㄴ) 균형물가수준은? (단, Y_d는 총수요, Y_s는 총공급, P는 실제 물가수준, P^e는 예상 물가수준이다.)

① ㄱ: 1, ㄴ: 0

② ㄱ: 2, ㄴ: 1

③ ㄱ: 3, ㄴ: 2

④ ㄱ: 4, ㄴ: 2

⑤ ㄱ: 5, ㄴ: 3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조건을 이용하여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수준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수요는 $Y_d = -P + 5$이고 총공급은 $Y_s = (P - P^e) + 6$이다.
예상 물가수준 $P^e = 5$를 총공급식에 대입하면 $Y_s = P + 1$이 된다.
균형에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으므로 $Y_d = Y_s$를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Y_d = Y_s$
균형물가수준은 총수요량과 총공급량이 같아지는 물가수준이므로 이 조건을 사용한다. 구한 균형물가수준을 어느 한 식에 대입하면 균형국민소득을 얻는다.

계산 과정

1. $P^e = 5$를 총공급식에 대입한다.
$Y_s = (P - 5) + 6 = P + 1$
2. 총수요와 총공급을 일치시킨다.
$-P + 5 = P + 1$
$2P = 4, \quad P = 2$
3. $P = 2$를 총수요식에 대입한다.
$Y = -2 + 5 = 3$
따라서 균형국민소득은 3이고 균형물가수준은 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균형값 $(Y, P) = (3, 2)$와 비교하면 'ㄱ: 1, ㄴ: 0'은 두 값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3, ㄴ: 2'이다.

② X
균형값 $(Y, P) = (3, 2)$와 비교하면 'ㄱ: 2, ㄴ: 1'은 두 값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3, ㄴ: 2'이다.

③ O
$P = 2$이고 이 값을 총수요식에 대입하면 $Y = 3$이므로 'ㄱ: 3, ㄴ: 2'가 정확하다.

④ X
'ㄴ: 2'는 맞지만 'ㄱ: 4'가 틀리다. $P = 2$일 때 $Y = -2 + 5 = 3$이므로 올바르게는 'ㄱ: 3, ㄴ: 2'이다.

⑤ X
균형값 $(Y, P) = (3, 2)$와 비교하면 'ㄱ: 5, ㄴ: 3'은 두 값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3, ㄴ: 2'이다.

오답 포인트

예상 물가수준 $P^e = 5$를 실제 물가수준 P와 같은 값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먼저 $P^e = 5$를 총공급식에 대입한 뒤, 총수요와 총공급을 같게 하여 실제 균형물가수준 $P = 2$를 구해야 한다. 또한 계산 결과의 순서는 문제에서 요구한 'ㄱ: 균형국민소득, ㄴ: 균형물가수준'에 맞춰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상 물가수준을 총공급식에 먼저 대입하고, $Y_d = Y_s$로 실제 균형물가수준을 구한 다음, 그 물가를 총수요식이나 총공급식에 대입하여 균형국민소득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총수요·총공급 균형은 '예상값 대입 → $Y_d = Y_s$로 P 계산 → 식에 재대입하여 Y 계산'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114.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환율제 하에서 정부지출을 감소시킬 경우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국가 간 자본의 완전이동과 물가불변을 가정하고,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수직선이다.)

① IS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② LM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③ 통화량은 감소한다.

④ 고정환율수준 대비 자국의 통화가치는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⑤ 균형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정환율제와 완전한 자본이동 아래에서 긴축재정이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량 조정과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부지출 감소는 총수요를 줄여 IS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려는 압력과 자본유출이 발생하여 자국통화에는 가치 하락 압력이 생긴다.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을 매도하고 자국통화를 회수하므로 통화량이 감소하고 LM곡선도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정부지출 감소는 재화시장의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IS곡선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② X
고정환율을 지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자국통화 회수로 통화량이 감소하므로 LM곡선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③ O
자본유출에 따른 자국통화 가치 하락 압력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도하고 자국통화를 회수하므로 통화량이 감소한다.

④ X
정부지출 감소 뒤에는 자국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려는 압력이 발생한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으로 실제 환율을 고정환율수준에 유지한다.

⑤ X
긴축재정과 이에 수반되는 통화량 감소가 총수요를 줄이므로 균형국민소득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정부지출 감소가 통화시장과 무관하다고 보거나, 자본유출의 방향을 자국통화 가치 상승으로 거꾸로 판단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④의 '통화가치는 일시적으로 상승한다'가 함정이며, 실제 방향은 가치 하락 압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정환율제에서는 먼저 재정정책에 따른 IS곡선의 이동을 정한 뒤, 자본이동이 만드는 환율 압력을 판단하고, 그 압력을 상쇄하는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정 방향을 연결한다. 정부지출 감소는 IS곡선 왼쪽 이동 → 자본유출·자국통화 가치 하락 압력 → 통화량 감소·LM곡선 왼쪽 이동 → 국민소득 감소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정환율에서 긴축재정은 통화수축을 동반한다: 정부지출 감소 → 통화량 감소 → 국민소득 감소이다.

NoteBase

문 115. 폐쇄경제 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킬 때 나타나는 변화를 IS-LM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LM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ㄴ. 이자율은 상승한다.
ㄷ. IS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ㄹ. 구축효과로 소득은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폐쇄경제의 IS-LM모형에서 통화량 감소가 LM곡선과 균형이자율·균형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S곡선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고, LM곡선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
물가가 일정할 때 통화량이 감소하면 실질통화량이 줄어 LM곡선이 왼쪽(위쪽)으로 이동한다. IS곡선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새 균형의 이자율은 상승하고 소득은 감소한다.
ㄱ: X — LM곡선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ㄴ: O — 화폐공급 감소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ㄷ: X — 통화량 감소는 화폐시장에 직접 작용하므로 IS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ㄹ: O — 이자율 상승이 투자를 위축시켜 총수요와 균형소득을 감소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의 '오른쪽 방향'이 틀렸다. 통화량 감소 시 LM곡선은 왼쪽(위쪽)으로 이동하므로 'ㄴ'만 옳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틀렸다. LM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IS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③ X — ㄹ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LM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이다.
④ O — ㄴ과 ㄹ이 모두 옳다. 통화량 감소로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⑤ X —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IS곡선은 이동하지 않으며, 경제는 기존 IS곡선을 따라 이동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통화량 감소를 LM곡선의 오른쪽 이동으로 착각하거나, 소득 감소를 IS곡선 자체의 왼쪽 이동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문제에서는 통화량이 화폐시장 조건을 바꾸므로 LM곡선만 이동하고, 이자율과 소득은 기존 IS곡선 위에서 함께 조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량 변화가 나오면 먼저 LM곡선의 이동을 판단한다. 통화량 감소는 LM곡선의 왼쪽 이동, 이자율 상승, 소득 감소로 연결되고 IS곡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통화량 감소 → LM 좌측 이동 → 이자율 상승 → 투자·소득 감소이다.

NoteBase

문 116. 폐쇄경제 균형국민소득은 $Y = C + I + G$이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재정적자가 대부자금시장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총투자곡선은 우하향, 총저축곡선은 우상향, Y: 균형국민소득, C: 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이다.)

① 대부자금공급량은 감소한다.

② 이자율은 하락한다.

③ 공공저축은 증가한다.

④ 저축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⑤ 투자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재정적자가 공공저축과 국민저축을 줄여 대부자금시장의 공급곡선과 균형이자율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폐쇄경제에서는 국민저축과 투자가 같으므로 $S = Y - C - G = I$가 성립한다.
공공저축은 조세를 T라고 할 때 $T - G$이다. 재정적자는 $G > T$인 상태이므로 공공저축을 감소시키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국민저축과 대부자금공급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저축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균형이자율은 상승하며, 투자량은 투자곡선을 따라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재정적자는 공공저축과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므로 대부자금공급량이 감소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이자율은 하락한다'이다. 대부자금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이자율은 상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공공저축은 증가한다'이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공공저축 $T - G$는 감소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오른쪽 방향'이다. 국민저축이 감소하므로 저축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투자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므로 투자곡선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곡선 위에서 투자량이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⑤에서 투자량 감소와 투자곡선의 이동을 혼동하기 쉽다. 재정적자는 저축을 변화시켜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며,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는 기존 투자곡선 위의 이동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적자 발생 → 공공저축 감소 → 국민저축 감소 → 대부자금공급곡선의 왼쪽 이동 → 이자율 상승 → 투자량 감소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정적자는 저축공급을 왼쪽으로 옮겨 이자율을 올리고 투자를 구축한다.

NoteBase

문 117. 폐쇄경제 하 총수요(AD)-총공급(AS)모형을 이용하여 정부 지출증가로 인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곡선은 우하향, 단기 AS곡선은 우상향, 장기 AS곡선은 수직선이다.)

ㄱ. 단기에 균형소득수준은 증가한다.
ㄴ. 장기에 균형소득수준은 증가한다.
ㄷ. 장기에 고전파의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장기 균형소득수준은 잠재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 증가로 총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할 때 단기와 장기의 산출량 변화 및 고전파의 이분법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늘리므로 물가수준과 균형소득이 함께 증가한다.
장기: 임금과 생산요소가격이 조정되면서 단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산출량은 잠재산출량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지출 증가는 장기 산출량을 늘리지 않고 물가수준만 높인다.
고전파의 이분법: 장기에는 명목변수의 변화와 실질변수의 결정이 분리되므로, 총수요 증가는 실질산출량에 영구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 ㄴ'은 옳지 않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ㄱ은 단기에 총수요 증가로 균형소득이 증가하므로 옳고, ㄷ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② X — 'ㄱ, ㄷ'은 옳지 않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ㄱ은 옳은 설명이고, 장기 균형소득이 증가한다고 한 ㄴ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③ O — 'ㄴ, ㄷ'은 모두 옳지 않다. 장기 산출량은 잠재산출량으로 복귀하므로 ㄴ이 틀리고, 장기에는 고전파의 이분법이 적용되므로 ㄷ도 틀리다.
④ X — 'ㄴ,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ㄹ은 장기 균형소득이 잠재산출량에서 결정된다는 옳은 설명이고, ㄷ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⑤ X — 'ㄱ, ㄴ,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ㄱ과 ㄹ은 옳은 설명이고, ㄷ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정부지출 증가로 단기에 산출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장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장기에는 생산비용이 조정되어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으로 돌아가며, 고전파의 이분법도 적용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확대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에는 물가와 산출량이 함께 상승하지만, 장기에는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으로 복귀하고 물가만 더 높은 수준에 남는다고 판단한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서는 먼저 각 ㄱ·ㄴ·ㄷ·ㄹ을 개별 판정한 뒤 조합을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총수요 확대는 단기에는 산출량 증가, 장기에는 잠재산출량 복귀와 물가 상승이다.

NoteBase

문 118. 경제학파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을 주장한다.
ㄴ.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을 전제한다.
ㄷ. 케인즈 학파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총 공급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한다.
ㄹ.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메뉴 비용(menu cost) 이론은 새 케인즈 학파(new Keynesian)의 주장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고전학파, 실물경기변동이론, 케인즈학파, 새 케인즈학파를 화폐 중립성, 가격·임금의 신축성, 경기침체의 원인, 가격 경직성의 미시적 근거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ㄱ. 고전학파: 화폐량의 변화는 명목변수에 영향을 주지만 실질산출량·고용 같은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화폐의 중립성을 전제한다.
ㄴ. 실물경기변동이론: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시장이 청산된다고 보며, 기술 변화 같은 실물 충격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ㄷ. 케인즈학파: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을 총공급 부족이 아니라 유효수요, 즉 총수요의 부족에서 찾는다.
ㄹ. 새 케인즈학파: 가격을 바꾸는 데 드는 메뉴 비용 때문에 기업이 가격 조정을 미루므로 가격이 경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옳지만, 새 케인즈학파의 메뉴 비용 이론을 설명한 ㄹ도 옳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ㄱ, ㄴ’은 ‘ㄱ,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ㄱ과 ㄹ은 옳지만, 실물경기변동이론이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을 전제한다는 ㄴ도 옳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ㄱ, ㄹ’은 ‘ㄱ,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③ X
ㄴ은 옳지만 ㄷ의 ‘총공급의 부족’이 틀렸고, 옳은 ㄱ과 ㄹ도 빠져 있다. 케인즈학파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총수요의 부족에서 찾으므로 ‘ㄴ, ㄷ’은 ‘ㄱ,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④ X
ㄴ과 ㄹ은 옳지만, 고전학파가 화폐의 중립성을 주장한다는 ㄱ도 옳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ㄴ, ㄹ’은 ‘ㄱ,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⑤ O
ㄱ의 화폐 중립성, ㄴ의 가격·임금 신축성, ㄹ의 메뉴 비용 이론은 각 학파의 주장과 일치하고, 총공급 부족을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본 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문장만 모은 조합은 ㄱ, ㄴ, ㄹ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ㄷ의 ‘총공급의 부족’이 핵심 함정이다. 케인즈학파는 경기침체기에 총수요가 부족하여 생산과 고용이 줄어든다고 본다. 또한 실물경기변동이론의 경기변동 원인이 실물 충격이라는 사실과 가격·임금의 신축성 전제를 서로 별개의 주장으로 오인하면 ㄴ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파별 대표 연결어를 먼저 대응시킨다. 고전학파는 화폐 중립성,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신축적 가격·임금과 실물 충격, 케인즈학파는 총수요 부족, 새 케인즈학파는 메뉴 비용과 가격 경직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전학파=화폐 중립, 실물경기변동=신축성, 케인즈=총수요 부족, 새 케인즈=메뉴 비용·가격 경직성이다.

NoteBase

문 119. A국가는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이고,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과 구직률(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2%와 18%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실업자 수는?

① 25만 명
② 40만 명
③ 50만 명
④ 75만 명
⑤ 100만 명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균제상태에서 실업으로 들어오는 사람 수와 실업에서 빠져나가는 사람 수가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 실업자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경제활동인구 L: 1,000만 명
실직률 s: 2%
구직률 f: 18%
구해야 할 값: 균제상태의 실업자 수 U
취업자 수는 $L - U$이고, 균제상태에서는 실업 유입량과 실업 유출량이 같다.

사용할 공식

$s(L - U) = fU$
이를 실업자 수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 = \frac{s}{s+f}L$
매 기간 취업자 중 s의 비율이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 중 f의 비율이 취업자가 되므로 균제상태에서는 두 이동량을 같게 놓는다.

계산 과정

1. 균제상태 실업률을 구한다.
$\frac{s}{s+f} = \frac{0.02}{0.02+0.18} = 0.1$
2. 경제활동인구에 균제상태 실업률을 곱한다.
U=0.1× 1,000만 명=100만 명
따라서 균제상태의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25만 명은 균제상태 조건으로 계산한 100만 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25만 명'은 '100만 명'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40만 명은 (0.02)/(0.02+0.18)× 1,000만 명의 결과가 아니다. 틀린 표현 '40만 명'은 '100만 명'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50만 명은 실직률과 구직률을 함께 반영한 균제상태 실업자 수가 아니다. 틀린 표현 '50만 명'은 '100만 명'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75만 명은 실업 유입량과 유출량을 같게 하는 실업자 수가 아니다. 틀린 표현 '75만 명'은 '100만 명'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100만 명이면 취업자는 900만 명이다. 실업 유입량은 0.02× 900만 명=18만 명, 실업 유출량은 0.18× 100만 명=18만 명으로 서로 같으므로 균제상태 조건을 충족한다.

오답 포인트

실직률 2%를 경제활동인구 전체에 바로 곱해 실업자 수를 구하면 안 된다. 실직률은 취업자 중 실업자가 되는 비율이고 구직률은 실업자 중 취업자가 되는 비율이므로, 두 집단 사이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같게 놓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제활동인구가 일정한 균제상태 문제에서는 먼저 $s(L-U)=fU$를 세우고, $U=\frac{s}{s+f}L$로 정리한 뒤 유입량과 유출량이 실제로 같은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균제상태 실업률은 실직률실직률+구직률이다.

NoteBase

문 120. 2021년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의 고용통계 작성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① 아버지가 수입을 위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조사대상주간에 무상으로 주당 20시간 근로한 자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②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③ 질병으로 입원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④ 대학생이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분류 기준과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의 분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취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또는 동일 가구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등이다.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일하지 않았고, 최근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무급가족종사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편의점에서 주당 20시간 일했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라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② O —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게 되면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다.
③ O — 실업자는 구직활동뿐 아니라 일이 주어졌을 때 즉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으로 입원하여 근로가 불가능하면 취업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④ O —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주간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주당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은 취업자이다.
⑤ O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분자는 실업자 수이고 분모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에서 일반적인 '수입 목적 1시간 이상' 기준을 무급가족종사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판단하기 쉽다. 무급가족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주당 18시간 기준이 적용되므로 20시간 근로자는 취업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사대상주간의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무급가족종사자이면 주당 18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적극적 구직활동과 즉시 취업 가능성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비율 문제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라는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급근로는 1시간, 무급가족종사는 18시간, 실업자는 구직활동과 즉시 취업 가능성이 모두 필요하다.

NoteBase

문 121.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L)와 소득(Y)은 효용을 주는 재화이며 한계대체율($MRS = \left|\frac{\Delta Y}{\Delta L}\right|$)은 체감한다.]

①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복권당첨은 근로시간의 감소를 초래한다.

② 여가가 열등재라면 노동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③ 임금률이 한계대체율보다 크다면 효용극대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

④ 개인 간 선호의 차이는 무차별곡선의 모양 차이로 나타난다.

⑤ 시장임금이 유보임금(reservation wage)보다 낮다면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득-여가 선택에서 비근로소득, 임금률, 선호, 유보임금이 여가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인은 소득과 여가가 주는 효용을 비교하여 노동시간을 정하며, 내부해에서는 임금률과 여가의 소득에 대한 한계대체율이 같아진다.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는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여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린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지만,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효과도 여가를 줄여 노동공급을 늘린다.
유보임금은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임금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복권당첨은 임금률을 바꾸지 않고 비근로소득을 늘린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 증가로 여가 소비가 늘어나므로 근로시간은 감소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노동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이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므로,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③ O
임금률은 여가 1단위를 포기할 때 얻는 소득이다. 임금률이 한계대체율보다 크면 여가를 근로시간으로 바꾸어 얻는 소득의 가치가 여가 감소에 따른 손실보다 크므로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④ O
무차별곡선은 소득과 여가의 여러 조합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나타낸다. 따라서 개인마다 소득과 여가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모양도 달라진다.

⑤ O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낮으면 노동 제공으로 얻는 보상이 여가를 포기할 만큼 크지 않으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②는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을 떠올리게 하는 함정이다. 후방굴절은 여가가 정상재일 때 높은 임금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져 나타날 수 있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이므로 우하향의 근거가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 상승 문제에서는 먼저 대체효과가 언제나 여가 감소·노동공급 증가 방향임을 잡고, 다음으로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소득효과의 방향을 정한다. 비근로소득 변화는 임금률이 그대로이므로 소득효과만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여가가 열등재이면 임금 상승의 두 효과가 모두 노동공급 증가 방향이다.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낮으면 노동공급은 0이다.

NoteBase

문 122.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노동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단기 총생산곡선의 형태는 원점으로부터 고용량 증가에 따라 체증하다가 체감하며,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이다.)

① 노동의 평균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노동의 평균생산보다 작다.

② 노동의 한계생산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노동의 한계생산과 노동의 평균생산은 같다.

③ 완전경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노동의 평균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감소한다.

⑤ 단기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평균생산가치곡선과 같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노동의 평균생산과 한계생산의 관계, 그리고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노동수요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노동의 평균생산 AP_L은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이고, 노동의 한계생산 MP_L은 노동 한 단위를 추가할 때 늘어나는 생산량이다.
$MP_L > AP_L$이면 AP_L이 증가하고, $MP_L < AP_L$이면 AP_L이 감소하며, 두 값이 같을 때 AP_L이 최대가 된다.
완전경쟁 생산물시장에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VMP_L = P \times MP_L$이다. 임금수용자인 기업은 임금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VMP_L = w$가 되는 고용량을 선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평균생산이 증가하려면 새로 투입된 노동의 한계생산이 기존 평균보다 커야 하므로 $MP_L > AP_L$이다. 틀린 표현은 '한계생산은 평균생산보다 작다'이며, 올바르게는 '한계생산은 평균생산보다 크다'이다.

② X
한계생산이 최대가 되는 점은 총생산곡선이 체증에서 체감으로 바뀌는 변곡점이다. 틀린 표현은 '한계생산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은 같다'이며, 올바르게는 '평균생산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이 같다'이다.

③ X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임금을 바꿀 수 없는 임금수용자이다. 틀린 표현은 '기업이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주어진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같아지도록 고용량을 결정한다'이다.

④ O
총생산이 체증하다가 체감하는 형태에서는 한계생산이 먼저 최대가 된 뒤 감소하고, 이후 한계생산이 평균생산과 만나는 점에서 평균생산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평균생산이 감소하는 구간은 이미 한계생산의 감소 구간에 속한다.

⑤ X
단기 노동수요는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하여 얻는 추가수입을 나타내는 한계생산가치와 임금을 비교해 결정한다. 틀린 표현은 '평균생산가치곡선과 같다'이며, 올바르게는 '단기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의 우하향하는 부분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한계생산의 최댓값'과 '평균생산의 최댓값'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두 곡선이 만나는 곳은 한계생산이 최대인 점이 아니라 평균생산이 최대인 점이다. ③은 기업이 임금과 고용량 중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뒤바꾸었고, ⑤는 한계생산가치를 평균생산가치로 바꾸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균의 증감은 한계와 평균의 크기를 비교해 판단한다. 한계가 평균보다 크면 평균이 상승하고, 작으면 평균이 하락하며, 같으면 평균이 최대이다.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는 주어진 임금과 한계생산가치를 같게 하는 고용량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한계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린다. $MP_L = AP_L$이면 평균생산 최대, $VMP_L = w$이면 이윤극대화 고용량이다.

NoteBase

문 123.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인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2L + 100$ 이다.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이고 생산물가격은 100 이다. 노동공급곡선이 $W = 10L$ 인 경우 다음을 구하시오.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투입량, W는 임금이며 기업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ㄱ. A기업의 이윤극대화 임금
ㄴ.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분(절댓값)의 크기

① ㄱ: 50, ㄴ: 100
② ㄱ: 50, ㄴ: 200
③ ㄱ: 100, ㄴ: 300
④ ㄱ: 100, ㄴ: 400
⑤ ㄱ: 100, ㄴ: 5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노동 수요독점기업의 고용량과 임금은 한계요소비용과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을 일치시켜 구하고, 사회후생 감소분은 경쟁적 고용량까지 발생하는 삼각형의 면적으로 구한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는 $Q = 2L + 100$이므로 노동의 한계생산은 $MPL = 2$이다.
생산물가격이 100이므로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은 $MRP_L = P \times MPL = 100 \times 2 = 200$이다.
노동공급곡선은 $W = 10L$이고, 기업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사용할 공식

총노동비용은 $TLC = W(L)L = 10L^2$이고 한계요소비용은 $MFC = \frac{dTLC}{dL} = 20L$이다.
수요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FC = MRP_L$이다. 고용량을 정한 뒤 임금은 노동공급곡선에 대입한다.
경쟁적 노동시장의 고용량은 $W = MRP_L$에서 정해지며, 사회후생 감소분은 수요독점 고용량과 경쟁적 고용량 사이에서 MRP_L과 노동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수요독점 고용량은 $20L = 200$에서 $L_m = 10$이다.
2. 이때 임금은 $W_m = 10L_m = 10 \times 10 = 100$이다.
3. 경쟁적 고용량은 $10L = 200$에서 $L_c = 20$이다.
4. $L = 10$에서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공급임금의 차이는 $200 - 100 = 100$이고, $L = 20$에서는 그 차이가 0이다.
5. 따라서 사회후생 감소분은 $\frac{1}{2} \times (20 - 10) \times (200 - 100) = 5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임금을 50, 사회후생 감소분을 100으로 제시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임금 100, 사회후생 감소분 500이다.
② X — 임금을 50, 사회후생 감소분을 200으로 제시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임금 100, 사회후생 감소분 500이다.
③ X — 임금 100은 맞지만 사회후생 감소분 300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사회후생 감소분 500이다.
④ X — 임금 100은 맞지만 사회후생 감소분 400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사회후생 감소분 500이다.
⑤ O — 이윤극대화 임금은 100이고 사회후생 감소분은 500이므로 두 값이 모두 맞다.

오답 포인트

수요독점기업은 노동공급곡선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도출한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수입생산을 일치시켜 고용량을 정한다. 또한 사회후생 감소분의 밑변은 경쟁적 고용량과 수요독점 고용량의 차이인 10이고, 높이는 수요독점 고용량에서 한계수입생산과 공급임금의 차이인 100이다. 삼각형의 면적이므로 $\frac{1}{2}$을 곱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일임금형 노동 수요독점 문제에서는 노동공급곡선으로 총노동비용을 만든 뒤 이를 미분해 한계요소비용을 구한다. 이어서 $MFC = MRP_L$로 수요독점 고용량, 노동공급곡선으로 임금, $W = MRP_L$로 경쟁적 고용량을 구한 다음 두 고용량 사이의 후생손실 면적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독점은 $MFC = MRP_L$, 경쟁은 $W = MRP_L$, 후생손실은 두 고용량 사이의 삼각형이다.

NoteBase

문 124.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은 정부 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ㄴ. 통계적 차별은 개인적인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
ㄷ. 통계적 차별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 생산성을 기초로 개인의 생산성을 예측하는데서 발생한다.
ㄹ. 동등가치론(comparable worth)은 차별시정을 위해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주장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용주의 선호차별과 통계적 차별의 발생 원리, 동등가치론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용주의 선호차별: 고용주가 특정 집단과 일하는 것을 꺼리는 기호 때문에 그 집단의 근로자를 덜 고용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다. 완전경쟁에서는 차별하지 않는 기업보다 비용이 커져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도태된다.
통계적 차별: 개인의 생산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 특성을 그 개인의 생산성 판단에 사용하는 차별이다. 개인적 편견이 없어도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동등가치론: 서로 다른 직무라도 숙련도·노력·책임·작업 조건 등에 비추어 가치가 같으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ㄴ과 ㄷ이 빠져 있다. ㄹ의 '공정한 취업의 기회'가 틀린 표현이며, 동등가치론은 동등한 가치의 직무에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옳은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이 빠져 있다.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선호차별을 하는 기업은 생산성이 같은 근로자를 배제하면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므로 기업 간 경쟁에 의해 도태된다. 옳은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O
ㄱ은 완전경쟁에서 선호차별 기업의 비용상 불리함을, ㄴ과 ㄷ은 집단 평균으로 개인을 판단하는 통계적 차별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④ X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이 빠져 있고 ㄹ이 포함되어 있다. ㄹ의 '공정한 취업의 기회'는 동등가치론의 내용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가치가 동등한 직무에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옳은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⑤ X
ㄱ, ㄴ,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모두 옳은 조합이 아니다. ㄹ은 '공정한 취업의 기회'가 아니라 '동등한 가치의 직무에 대한 동등한 임금'으로 고쳐야 한다. 옳은 조합은 ㄱ,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ㄹ의 '차별시정'이라는 표현만 보고 동등가치론을 고용기회의 평등과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동등가치론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채용 기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직무의 가치와 그에 따른 임금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호차별은 차별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과 경쟁에 따른 도태 여부를 확인한다. 통계적 차별은 개인 정보 대신 집단 평균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동등가치론은 취업 기회가 아니라 직무가치와 임금의 대응 관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선호차별은 경쟁에서 비용 불리, 통계적 차별은 집단 평균으로 개인 판단, 동등가치론은 동등가치노동·동등임금이다.

NoteBase

문 125.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곡선은 각각 $L_d = -W + 70$, $L_s = 2W - 20$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W = 40$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고용량은? (단, L_d는 노동수요량, L_s는 노동공급량, W는 노동 1단위당 임금이다.)

① 30

② 40

③ 50

④ 60

⑤ 7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된 최저임금 아래에서 실제 고용량이 노동수요량과 노동공급량 중 더 작은 노동수요량으로 결정된다는 원리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식: 노동수요는 $L_d = -W + 70$, 노동공급은 $L_s = 2W - 20$이다.
정책 조건: 최저임금은 $W = 40$이다.
구해야 할 값: 최저임금 시행 후 실제 고용량이다.

사용할 공식

경쟁균형에서는 $L_d = L_s$이고, 유효한 최저임금 아래의 실제 고용량은 거래의 단변 원칙에 따라 $\min(L_d, L_s)$이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은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임금에서 노동수요량과 노동공급량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균형임금을 구하면 $-W + 70 = 2W - 20$이므로 $3W = 90$, $W = 30$이다.
2. 최저임금 $W = 40$은 균형임금 30보다 높으므로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유효한 최저임금이다.
3. $W = 40$에서 노동수요량은 $L_d = -40 + 70 = 30$이고, 노동공급량은 $L_s = 2(40) - 20 = 60$이다.
4. 기업이 고용하려는 노동수요량이 30이므로 실제 고용량은 $\min(30, 60) = 30$이다. 노동공급 60과 고용 30의 차이인 30은 초과노동공급, 즉 실업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최저임금 $W = 40$에서 노동수요량은 $L_d = -40 + 70 = 30$이고, 실제 고용량은 노동수요량 30이다.
② X — 40은 최저임금의 크기이지 고용량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고용량이 30이다.
③ X — 50은 주어진 노동수요식이나 노동공급식에 $W = 40$을 대입하여 얻는 값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노동수요량 30과 노동공급량 60 중 작은 30이 고용량이다.
④ X — 60은 $W = 40$에서의 노동공급량이지 실제 고용량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기업의 노동수요량인 30만큼 고용된다.
⑤ X — 70은 노동수요곡선의 임금이 0일 때 절편이지 최저임금 시행 후 고용량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W = 40$을 노동수요식에 대입한 30이 고용량이다.

오답 포인트

최저임금 40을 고용량으로 착각하거나, 노동공급량 60을 실제 고용량으로 선택하기 쉽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으면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고용량은 기업이 고용하려는 노동수요량 30으로 제한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요와 공급을 같게 두어 균형임금을 구하고, 최저임금이 그보다 높은지 확인한다. 유효한 최저임금이면 해당 임금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계산하고, 실제 거래량은 둘 중 작은 값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균형보다 높은 최저임금에서는 노동공급이 아니라 노동수요가 고용량을 결정하며, 노동공급량과 노동수요량의 차이는 실업이다.

NoteBase